

# 더 이상 망하지 않을 역사 만들기

박이순<sup>1)</sup>

## 1. 프롤로그 - 우리는 왜 역사를 배우는가?

세계 대학의 예산이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s)에 집중되고, 교육의 계획이 당장의 수익산출에 의해 설계되고, 지식인재의 배출도 그러한 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도, 역사학은 꾸준히 인문교양의 중심적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까지의 각국의 역사교육이 두 차례의 대전(大戦)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로의 어프로치에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통하는 새로운 기반의 모색이 필요하다. 과거에로의 어프로치는 단순히 국민국가사(국사)에 연결되는 것으로서의 역사로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나쇼날한 과거와 글로벌한 과거의 상호 관련성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한다”<sup>2)</sup>

19세기 유럽의 지배자들은 강력한 ‘국민국가’로서의 통합과, ‘민족 국가’로서의 ‘전통’만들기를 시도하였다. 역사가들을 활용하여 민족

---

1) 강원대학교 인문학부 일본학전공 교수

2) 國際連合教育科学文化機關(UNESCO)이 개최한 회의 발표(Tessa Morris-Suzuki, 姜尙中, 『Doing History<「歴史」に対して、わたしたちができること>』, 弦書房, 2017).

의 특수한 상징과 기억을 연구시켜 그것을 대중에게 보편적 기억으로 정착시켰다. 결국 이를 통해 강고해진 민족주의는 보다 더 많은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sup>3)</sup>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나자, 인류는 결국 위와 같은 역사교육,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제기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있어서까지 각국의 권력들이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를 위해 역사를 이용하고, 애국주의적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 역사교육을 이용하는 풍조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sup>4)</sup>

이제 인류는 권력적 이해관계나 이용가치를 떠나서, 지구상의 각종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글로벌 수준의 인류의 생존과 공존(coexistence)을 지향해 나가야 하는 과제 앞에 있다.

즉 서로 다른 환경조건의 문화풍습 속에 살아온 사람들 간의 인간 이해는 사실상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다. “서로가 이해되면 전쟁은 없다”는 면에서 역사 해석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구 한쪽에서는 경제 협력을 위한 범연합적 차원의 공동체 의식 형성이라는 국가 생존 전략에 부합하여, 공통의 역사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등의 ‘doing history’작업도 활력을 얻고 있다.

3) 민족주의는 근대국가가 파생시킨 이념으로,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 만든 도구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윤상욱, 『권력은 왜 역사를 지배하려 하는가』, 시공사, 2018).

4) 미국의 트럼프즘(Trumpism; 사실상 백인민족주의), 푸틴의 애국전쟁 신화(러시아 민족주의), 인도에서는 아리안 민족주의, 헝가리, 동유럽 국가들의 기독교 민족주의, 신형대국론을 말하는 중국의 중화이념추구 작업 등, 세계 각국의 지배 권력들이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을 통해 그들의 지배이념을 정당화시켜 나가고 있다(윤상욱, 앞의 책, 그리고 정승민 『역사 권력 인간』, 눌민, 2018).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우리 인류가 그 무엇보다도 역사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가장 보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환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과거의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배움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인류는 흥망성쇠를 반복하는가? 왜 사람들은 싸우고, 수많은 갈등과 인류의 희생을 반복하는가? 앞으로도 그리 살 것인가?

역사학에서 흔히 말하는 시대구분론 속에서 보면, 이른바 고대(古代)의 정권도 망한 것이고, 중세의 정권도 망해 버렸다. 근세도, 근대 등도 결국은 새로운 정권, 새로운 시대란 앞 시대의 실패가 탄생시킨 결과물이기도 하였다.

자국민의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국가적 자존심을 내세우기에 바빴던 역사 연구의 풍조가, 자국사 속의 실수와 실패에 눈을 감고 축소화하려는 경향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과거의 잘못된 실수’를 과감히 청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결과 또다시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의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망하기 위해, 실패를 반복하기 위해 오늘을 노력하며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소모전의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 2. 일본의 역사 속에서 - 권력 실패 반복의 역사

인류가 어떠한 양상으로 실패를 반복해 왔나? 예컨대 일본사 안으로 들어가 보자.

일본지역은 1만년 이전 육지와 연결되어 있을 때 고(古)몽골로이드의 인류가 들어가 삶의 터전을 일구기 시작했다. 해빙기로 해면이 상승하여 열도로 떨어지게 된 후에는, 주로 대륙으로부터 전래된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문화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여기에 이른바 ‘권력’의 출현을 알리는 초대형급 고분이 4~7세기에 걸쳐 건설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 고분들의 주인공을 ‘만세일계의 천황’ 계보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으며, 천황릉으로 비정된 고분들은 궁내성(宮內省) 관리 하에 있어 발굴이 금지되어 있다. 예컨대 오사카 평원에 가면 전장 486미터의 다이센(大仙)고분이 잘 조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권력’의 출현을 훌륭하게 가시화하고, 최고위의 천황가의 이야기로, 일본 역사의 자랑스러운 한 부분으로 가르치고 있다.

역사교과서는 ‘권력’의 역사를 끊임없이 펼쳐 보여준다.

7세기에는 소가(蘇我)씨 권력이 초기 일본국가의 체재를 주도했다. 그러나 이 소가씨의 전횡은 여타 세력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나카토미노 가마타리(中臣鎌足; 뒤의 후지와라씨(藤原氏)) 등에 의해 타도된다. 권력을 잡은 후지와라씨는 천황가의 외척을 발판삼아 장기간에 걸친 독점적 권력으로 조정을 주도하였고, 가혹한 세금 부과 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부를 독차지 하였다. 그 과정에서 치안이 어지러워지고, 대다수 서민들의 도망과 부랑(浮浪), 귀족 사유지(장원)의 예속화

현상 등, 사회 모순 심화와 빈부 격차가 해결하지 못한 결과가 고대 국가의 종언이었다.

후지와라씨 정권 타도를 외치며 일어났던 다이라(平)씨도, 후지와라씨와 마찬가지로, 천황의 외척으로서의 최고 권세와 관직독점을 추구하다가, 그로부터 배제된 구세력의 강한 반감을 받아 몰락하게 된다.

이 다이라씨 몰락에 활약했던 미나모토(源)씨는 무가(武家)가 주도하는 막부시대를 열게 된다. 그러나 미나모토 장군가는 1대 장군 사후, 후계자 두 아들들의 연이은 살해 사건으로 종지부를 맞는다. 이를 대신하여 득세한 외척 호조(北条)씨는 구시대적 행보를 반복, 즉 정적을 일소하며 권력 집중을 달성해 나갔다. 그러다가 호조씨 본종가인 도쿠소가(得宗家)와 대대로 인척관계를 맺던 아시카가(足利)씨의 배반으로 멸망하였다.

무로마치(室町) 막부를 연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동생과의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전국적인 쟁란을 초래하였다. 각지에 일족을 파견하여 권한을 확대해 나갔는데, 그 지배 역시 전(前)시대적 전제 정치의 반복이었다. 무로마치 장군가의 후계자 결정을 둘러싸고 전국 다이묘(大名)들이 동·서로 나누어 10년간 실권다툼을 벌이다, 교토(京都)가 초토화되기도 하였다(오닌(応仁)의 난;1467~1477년).

이후 다양한 계층출신의 무사들이 등장해 분국(分国)을 세우거나, 독자적 지배를 행하는 약 1세기에 걸친 혼란의 전국시대(戰國時代)가 펼쳐진다.

무로마치 막부를 멸망시키고 ‘천하포무(天下布武)’를 내세우며 일어났던 오다 노부나가도 자신의 배반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

1591년 마침내 전국 통일을 완성한 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였다. 그 지배권을 천황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자랑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후계자의 지위를 어린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모반 죄명을 씌워 조카를 죽여 버린다. 그러나 기반이 미약했던 도요토미의 사망 후, 정작 권력을 잡은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였다.

도쿠가와씨에 의해 주도된 에도 막부는, 평화시대를 구가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평화의 시대는, 조정을 비롯하여 공가(公家)귀족, 종교 등에 대한 각종의 통제와 감시, 엄격한 신분질서적 규제, 쇄국체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방면에 걸친 엄중한 관리 감시의 지배 이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따라서 결국에는 지배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잇키(一揆) 등, 각종의 무력봉기, 저항을 낳았다.

18세기 후반 구미열강과의 통상조약을 둘러싸고 막부와 조정이 대립하고, 한편에서는 장군의 후계자 결정을 둘러싸고 다이묘간에 싸움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처벌과 탄압이 자행되었다.

1867년 정권이 장군으로부터 조정으로 돌아가는 대정봉환(大政奉還), 그리고 왕정복고의 대호령(大號令)을 걸쳐 도쿠가와씨는 정권에서 제외되고, 1868년 무진(戊辰)전쟁을 걸쳐 2백 수십 년간에 걸친 에도 막부도 멸망해 버렸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상의 공식적인 무가 시대의 종언’은 아니었다.

새로운 근대국가체제를 표방하였던 메이지(明治) 정국 이후로도

청일전쟁, 노일전쟁, 한국합병, 만주진출, 중일전쟁, 1,2차 세계대전 등에서 보여준 ‘전쟁국가’ 일본의 모습은, 무력 제일주의의 오랜 역사적 관념과 관습의 대외적 표출이었다.

현대사에 있어 ‘정권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정치 행보 속에서, 대의보다는 특정 개인, 특정 집단의 이권이 국익으로 포장되고, 특정 국수주의적 정당의 주장이 일본의 국가적, 역사적 입장처럼 호도되고 있으니, 긴 역사적 행보 속에 사실상 ‘변한 것은 없다’가 된다.

이 같은 권력 쟁투의 역사가, 어찌 일본사 안에서만의 모습이겠는가.

세계사에는 여전히 ‘내전과 분쟁’, ‘군사력 증강’, ‘패권국가’, ‘경제 전쟁’, ‘영토 분쟁’, ‘자국 중심의 이기주의적 제국주의 면모’, ‘대립과 갈등’과 같은 용어들이 범람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는 권력자가 자기 정당화를 위해 ‘역사 만들기 작업’으로 국민들을 이념적으로 세뇌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즉 권력 중심의, 권력 패망의 역사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만을 본다면 인류의 기존 방식에는, 세계 평화를 위한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 위해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역사 교육이다. 역사교육을 통해 과

거의 사례에서 교훈 혹은 대응방안을 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평화적”, 또 “역사적 사실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고 역지사지하는 방식을 습득한다면 사고의 폭이 넓어집니다. 특히 나와 다른 시각이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접해도 거부감이나 반감이 줄어들 것<sup>5)</sup>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타당한 의견이다.

그런데 그 ‘역지사지’가 사실상 몹시 어렵다는 것이다. 상대의 입장에서 헤아리고 싶어도, 이미 내게 저장된 인식이 기본 잣대가 되어 버린다. 인간의 의식이 자기를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또 연구나 교육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날 배워 온, 뇌 속에 저장된 기억체계, 역사의식 속에 있다. 그들로부터 교육받은 학생들이 갑자기 달라진 의식적 진보를 이루기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다. 자국민이나 자민족의 입장만을 수호하며, 타민족에 배타적인 민족주의적 시위행렬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앞장서고 있는 현인류사적 상황은, 바로 그 교육의 산물이란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역사연구나 교육 이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근본적인 인간 의식 그 자체의 전환이라는 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제까지 역사상 권력을 얻은 대부분의 이들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대의를 잃어버렸고, 인류의 많은 희생을 야기했다.

앞 시대가 실패로 끝났어도 그러한 실패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을 교훈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은, “인간은 살아온 산 삶의, 짝어온 사

---

5) 정승민, 앞의 책.



진의 노예가 되어, 그 사진이 시키는 대로 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sup>6)</sup>

인간의식을 해결하는 것만이 본격적인 답이 될 것이다.

#### 4. 에필로그 - 희망의 역사

그렇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식, 즉 인간이 자기중심적 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내 입장을 놓고, ‘상대가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으려는 노력 없이 상대와의 문제를 풀기 어렵다. 국가 간 분쟁의 출발은 바로 이것이 아니었던가?

지난날 인류가 역사 교육을 통해 자민족중심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관철하려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인류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던가. 한 나라의 권력자가 그 자기중심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던가. 그 모든 것이 결국 흥망성쇠—아무리 애써 쌓아올려도 그 결과는 망(亡)함이요, 쇠(衰)함—의 구조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은 바로 그 자기중심적인 인간의식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풀 구체적 방법이 필요하다. 역사적 담론은 우선 내려놓고, 먼저 인간의 마음부터 해결해야 한다. 국가도 민족도 또 그 인간마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일찍이 노자는 자승자강(自勝者強)을 말하였다.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입장, 이기적인 마음을 이겨 넘어간다는 말이다.

6) 우명, 『이 세상 살지 말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 가서 살자』, 참출판사, 2011.

그것이 가장 최고위의 승리자라고 이미 인류는 말해 왔다.

진정한 인류 공존의 달성은, 이제까지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나(내 중심의 의식)를 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교육도 이러한 의식을 키울 수 있을 때, 젊은이들을 진정한 세계인으로서 크게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마음 때문에 망해 버리고 마는 역사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뛰어넘기 위해 역사를 배운다.

내 생각이 맞다고 논쟁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 갈 미래사회에 맞는 답을 찾아내기 위해 역사를 배우고 연구한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역사를 만들기 위해, 인간 의식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자기중심적 의식으로부터 벗어나 세상을 참되게 바라보고 수용할 수 있도록, 인간 의식을 참되게, 넓게 키우는 공부부터 해나가야 한다.

박이순

주소: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인문학부 일본학전공

전화: 010-8000-7105

전자우편: pss8253@kangwon.ac.kr